

### (3) 체육·구호활동

청년단체는 체력도 민족의 실력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체육활동을 벌였다. 각 청년단체는 산하에 체육부를 설치하였으며, 체육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방도를 강구하였다. 특히, 순천청년회는 1922년 10월 이래 국유지를 대부분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여의치 않자 순천군 향교 후원(後園)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순천청년회는 순천유학생대회와 협력하여 향교 유림과 끈질긴 교섭을 벌여나갔다. 결국 1923년 8월 순천군 향교장의회에서는 향교 후원 2,300평을 운동장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장소는 확보되었지만 운동장 정리와 각종 기구 설치에 소요될 비용 마련이 문제였다.

이를 위해 순천청년회에서는 소인극단을 조직하여 1923년 10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어시장에서 소인극을 흥행하였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고 1923년 10월 말 순천청년회는 박영진·나정선(羅正善)·이영민을 의연금 모집위원으로 선정하고 모금활동에 착수하였다.

청년들은 문화진흥의 출발점이 풍속을 개량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1922년 7월 정안청년구락부는 정기총회에서 지방의 악습·폐풍 개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1924년 1월 초 순천청년회는 유학생대회와 협력하여 신문화를 선전하고 새로운 사조를 소개하는 연극을 준비하여 공연하였다.

청년단체는 재난을 당한 동포의 구호활동에 참여하였다. 1922년 10월 순천청년회에서는 황해도에서 발생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김성초(金成初)·강영순(姜寧淳)·김영석(金英錫)을 구제위원으로 선정하였다. 1923년 8월 순천청년회, 먼려청년회는 공동으로 평양지방 수해구제회를 조직하고 기부금 모집활동을 편 끝에 약 150원을 모금하여 동아일보사 평양지국을 통해 전달하였다.